



[금융] 신한금융그룹 신한 퓨처랩 인도네시아 출범 05



Economy

↑ 코스피 2019.55 (+10.42)	↓ 코스닥 625.77 (-5.38)
↓ 금리 (연평균) 1.24 (-0.03)	↓ 환율 (원/달러) 1193.00 (-3.90) (9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의혹만으로 낙마는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좌초대선 안돼”

‘민주당 정부’ 검찰개혁 완수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외 6명의 장관·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민주당 정부’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관련기사 3면)

실제 문 대통령은 같은날 진행된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초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이들 기관이 국민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임기 내 제도를 구축할 예정임을 문 대통령이 부각시킨 셈이다. 일각에선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계 찬반 논란에 따른, 국민분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란 해석도 뒤따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6명의 장관·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 수여 때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조 장관 임명 이유의 운을 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한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성향’ 야당 정의당은 문 대통령 의지와 궤를 같이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이 있던 날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검찰이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사법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브리핑 때 “(조 장관은) 야당의 비판 및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전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을 각각 임명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중장기 투자 고수익 가능 고위험 손실은 투자자 몫

사모펀드의 세계

(2) 사모펀드의 매력

정부, 각종규제 완화 등 시장육성 창업-성장-회수 경제순환 기여

#. 직장인 A씨는 최근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렸다. 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두 배의 차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투자자금 3억원은 3년 새 5억 원으로 불어났다. 100억원 규모의 해당 펀드 재산운용 담당회사인 업무집행사원(GP)도 ‘대박’이었다. 기준수익률(30%)을 넘으면 성과보수 30%를 받기로한 약정 덕분에 운용보수로만 22억원 넘게 챙겼다.

경제 침체 속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규모 자금이 사모펀드로 향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운용역도 공모형보다는 사모형펀드를 선호하는 추세다. 고객 클레임(불만·비난)이 적으면서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사모펀드가 혁신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모시장 육성에 힘쓰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헤지펀드 운용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인 ‘타임폴리오 위드타임 펀드(증권투자신탁)’를 출시한다. 최소투자 요건 없이 여러 개의 전문사모(헤지)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재간접펀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



고 있어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정보력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재간접 펀드를 통해서라도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서 “그만큼 사모펀드 시장은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 알만한 사람끼리, 알만한 투자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통상 최소가입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49인 이하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한다. ‘투자에 대해 알만한 사람끼리’ 이뤄지는 시장인 것이다.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롱숏(long-short·매수매도) 전략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하고, 기업 지분 혹은 부동산에 투자해 매각 차익을 얻기도 한다.

실제 A운용사는 사모펀드를 통해 매물로 나온 고가의 빌딩을 사고,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가 넘는 수익을 내기도 했다.

사모펀드라고 고수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개인이 원하는 수익률에 맞춘 ‘맞춤형 상품구성’도 가능하다. 시중 금리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사모펀드도 다수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언제나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구조일 경우 투자상품과 투자 지역에 따라 ‘쪽박’이 될 수도 있다. 사모펀드는 손실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분기에 자산운용사 260개사 가운데 118개사가 적자를 기록해 적자회사 비율이 45.4%로 전분기(37.6%) 대비 7.8%포인트 증가했다”면서 “특히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186개사 중 101개사(54.3%)가 적자를 기록한 만큼 운용사의 재무현황과 자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LG가 달라졌다”... 구광모 ‘실용주의’ 드라이브

올레드TV, 삼성 정조준 공격 마케팅 LG화학, SK이노 ‘특허침해’ 맞제소 LG유플러스, 경쟁사 방통위 신고도

LG가 공격적인 마케팅과 경영 행보로 재계를 흔들며오고 있다. 구광모 대표의 실용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평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LG 올레드 TV 바로알기’ 광고를 론칭했다. 올레드가 아닌 TV는 어떤 수식을 붙여도 백라이트를 필요로 하는 LED TV라는 내용이다. 광고는 특히 QLED TV를 비교적 오래 노출하며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정조준했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IFA2019에서도 LG전자는 삼성전자 8K TV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가 정한 8K TV 기준에 따르면 화질 선명도가 50% 이상이었지만, 삼성 8K TV는 12%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LG전자는 지난 5월에도 삼



구광모 LG 대표는 실용주의와 자율 경영을 앞세워 현장 행보도 가속화했다. 최근 구 대표(가운데)가 LG화학 기술연구원을 방문해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 /LG

성전자 QLED TV가 SUHD TV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LG전자뿐 아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에 이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에는 일본산 불화수소를 완전히 대체하면서 소재 독립에도 앞장섰다.

LG화학도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건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LG화학도 특허 침해로 맞제소를 걸 예정이다. LG화학이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도 지난 7월 경쟁사인 KT와 SK텔레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이유였다. 실제 제재 효과는 없었지만,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는 올해부터 LG가 변했다며 입을 모은다. 큰 이슈를 만들지 않으려던 이전과는 달리, 구광모 대표가 취임한 후 LG 계열사들이 거침없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LG는 올 초 구 대표가 신년사에서 ‘고객 가치’를 강조한 이후 다양한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용주의가 가장 핵심이다. 구 대표 취임 후 걸치레를 없애고 실용을 추구하도록 분위기를 이끌었다. 자율 복장이나 임원 세미나 대신 LG포럼 개최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용 기자 juk@